

녹색혁명

- 다수확품종 개발 → 식량 증산
-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중심으로 각지의 농업연구소에서 소맥·쌀·옥수수 등의 품종개량 추진
-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IRRI(국제벼연구소)를 중심으로 '기적의 쌀'이라고 불리는 벼 다수확품종 개발
- 한국에서도 1970년대 IRRI의 도움을 받아 통일, 유신개발 보급
- 기계화, 화학비료, 농약을 활용한 현대적 농업의 기반
- 쌀 자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동원 '증산왕'
- 결국 미질이 좋지 않아 실패로 돌아감-정부미->소비자는 누구?

쌀의 사회사

- 1961년 10월 재건운동본부: 절미운동; 절미통, 절미항아리
- 쌀은 체제경쟁의 상징
 - 김일성 1962년 신년사 "머지않아 모든 인민들이 이팝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"
"비료는 쌀이고, 쌀은 공산주의다"
 - 박정희 정부는 혼분식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
 - 식량위기에 따른 정치적 위기 맥락에서
- 1963년 10월 5일: 김일성은 '남한이 미국의 잉여농산물로 식량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달리 북은 5-6년 전부터 쌀 자급자족; 남쪽에 식량원조 제안
- 박정희의 식량 문제 해결 운동 가속화
- 쌀 막걸리 제조 금지(1963)
- 1964년 8월부터: 모든 음식점은 육개장, 곰탕, 설렁탕에 쌀 50%, 잡곡 25%, 면류 25%를 넣어 혼합 조리

- 1969년 1월 미곡소비억제를 위한 행정명령: ① 모든 음식판매업소에서는 반식(飯食)에 25% 이상의 보리쌀이나 면류를 혼합 판매해야 한다. ② 모든 음식판매업소는 매주 수요일·토요일 11~17시에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을 판매하지 못한다. ③ 관공서, 국영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는 일체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 판매를 금지한다
- 대한요식업업체 주최로 혼식실천 궤기대회, '너와 나의 혼식으로 국력증강 찾아온다'
- 전국주부궤기대회-각 가정에서는 15% 잡곡, 1주 3회 이상 분식
- 도시락 검사
- 1973년 혼식의무 제도: 30% 혼합비율 의무화

-대중매체, 학교, 관공서: '쌀은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' '밀가루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 키가 크고 건강에 좋다'

-식품영양학자들의 역할-빵 예찬론 확산

-분식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라면(1963년 이후)

: 1인당 밀가루 소비량 1963년 13.8kg->1969년 28.7kg

-삼양식품 대기업으로 성장: 전중현 회장

“운명의 여신은 삼양을 향해 미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정부에서는 부족한 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분식장려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. 식량이 부족한 나라로서는 당연한 정책이었습니다. 이 정책을 위해서 삼양라면은 벌써 2년 전부터 라면 생산을 통해 그 정지작업을 해온 셈이니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봐야 옳지요”

-빵, 과자, 국수 산업 발달

▣ 혼분식의 노래

1. 들에는 맑은 바람 뜨거운 햇볕, 빛깔도 고옴게 오곡을 키워, 그 곡식 고루 먹고 자라는 우리, 넘치는 영양에 살찌는 살림, (후렴) 쑥쑥 키가 크다 힘이 오른다-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
2. 하얀 국수가락 맛좋은 빵에, 고소한 잡곡밥 그 맛을 알면, 해와 같이 밝은 마음 튼튼한 육체, 우리도 넉넉히 살 수 있어요
3. 모자라는 흰쌀에만 마음 쏠리던, 연약한 지난날 이제는 안녕, 잡곡이 밀어주는 알찬 살림에, 우리도 즐겁게 살아가겠네

<http://blog.naver.com/whgh6897?Redirect=Log&logNo=80034277123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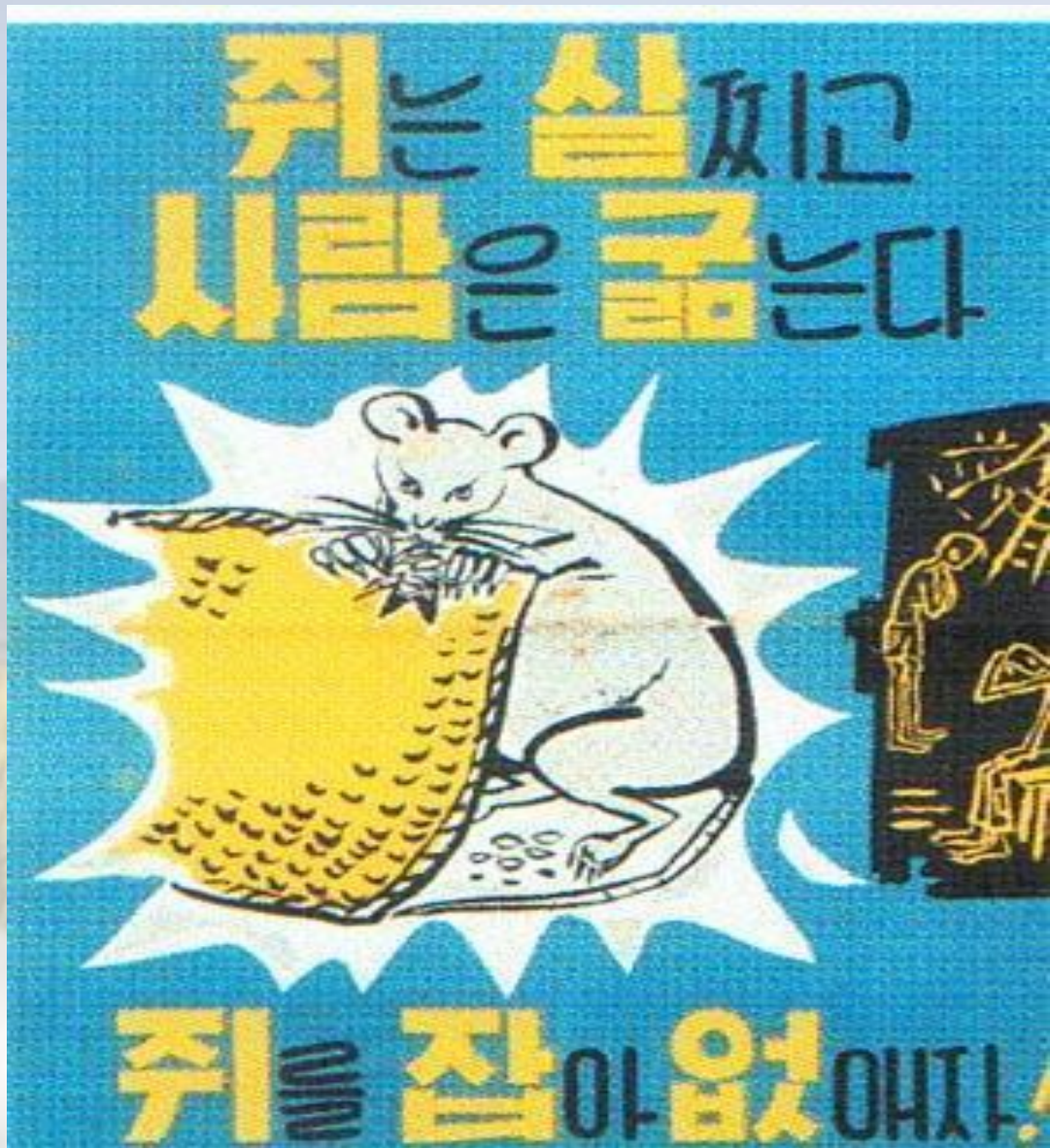
▣ 쥐잡기 운동=식량안보?

- “전국 창고에서 쥐가 먹어 치우는 쌀이 연간 300만 섬(1년 생산량의 10%)이나 돼 쥐잡기는 식량 확보와 직결된 절실한 과제” 농림부 전순표
- 극장의 대한뉴스에서도 방영
- 행정조직인 통, 반, 면 등을 활용 쥐약 배포
- ‘한 집에 한 마리만 잡아도 수만 명이 먹고 산다’
‘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’
- 쥐잡기 포스터 대회; 쥐꼬리 제출 축제

쥐잡기 포스터 대회 입상자 시상식



<http://conteworld.tistory.com/entry/%EC%A5%90%EC%9E%A1%EA%B8%B0-%EC%9A%B4%EB%8F%99>



일시에 쥐를 잡자



10월 20일 오후 5시

- 쥐약은 가정마다 무상으로 드립니다.
- 미끼는 부락공동으로 만듭시다.
- 한집도 빠짐없이 투약합시다.

농수산부

-1976년 쌀 자급 달성-무미일 폐지

3,621만 석

1석=약 144kg(성인이 1년 먹는 양)

4인 가족=4석 필요=논 한 마지기=경기 150평; 충청 200
평; 강원 300평



▣ 1977년 1월 연두기자 회견-박정희

-북한의 식량난 매우 심각

-북측에서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상당량의 쌀을 지원할
용의가 있다

-1977년 쌀 4,000만 석 돌파

-12월 쌀 막걸리 제조 허가

중앙일보 1977년 12월 9일자 기사

“쌀 막걸리가 선보인 8일 서울의 주점가는 마치 축제의 거리 같았다. 초저녁부터 만원 사례의 즐거운 비명 속에 일부 대폿집에서는 안주값을 평소의 4-5배씩 올려 받아 주당들이 기분을 잡치기도 했다. 쌀 막걸리가 서울서 시판된 첫날일 8일 초저녁부터 술집에는 옛맛을 시음하려는 애주가들로 붐볐다. 오랜만에 나온 탓인지 종로구 청진동, 무교동과 중구 북내동 등 대폿집엔 하오 7시부터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이 술꾼들이 북적였고 ‘싱겁다’, ‘예전 맛이 아니다’는 푸념 속에서도 하오 8시 즈음에는 받아 놓은 술이 동이 나기도 했다. 빈대떡집들이 몰려 있는 청진동에는 유리창마다 ‘나왔다 쌀 막걸리’, ‘14년 만에 등장한 우리 옛 맛’, ‘조국 술꾼들의 술 시음장’, ‘기쁘다 쌀 막걸리 나왔네 만백성 맞으라’는 등 구호를 써붙이고 손님을 끌었으며 여느 때보다 일찌감치 빈대떡, 순대 등 술국과 안주를 마련하기도 했다”

우리는 무엇을 먹는가(2): 옥수수

● 옥수수 전성시대

-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량 작물로 부상
- 주식(멕시코: '옥수수의 사람')
- 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 원료
예) 탄산음료(고과당 옥수수 시럽), 식용유, 빵, 과자, 맥주, 비타민제
-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의 핵심 원료

우리는 무엇을 먹는가(2): 옥수수

- 옥수수 생산의 비효율성:
쇠고기 1kg=옥수수 7kg=석유 0.35리터
- 미국 옥수수 생산량 60% 소의 사료 – 8억 5천만 명 기아
- GMO(유전과 변형 작물) 논쟁: 2008년 5월 이후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라 식용 가공용으로 옥수수 수입
- 한국인 1인당 연간 182kg 소비 (직접 소비: 4.6kg);
자급률 0.8% (사료 포함시)

IV. 현대 농식품 체계의 구조와 동학



먹거리의 산업화

- **산업혁명과 먹거리 가공기술 발전**

- 저장 기법(통조림)
- 육류 가공기법, 곡물 제분기법
- 화학적 식품 첨가물

→ **산업화된 먹거리와 다양한 가공식품의 발전**

- **냉동 기술과 운송 수단의 발전**

- 냉장 냉동 기술, 철도의 발전
- 곡물과 육류의 대량 수송 (미국, 호주, 아르헨티나, 캐나다)

→ **대규모 식품산업 등장 : 자본, 설비와 장치 산업**

산업형 농업과 석유 농업

● 산업형 농업

- 농업의 대규모 산업화 : '규모의 경제'
- 표준화 : 종자, 퇴비, 노동력이 일정하게 투입
- 화학 합성 비료, 농기계, 농약 등 : 석유 농업 (신진대사 균열metabolic rift)
- 석유 (공산품) → 질소비료, 농기계 연료, 비닐, 난방
- 대규모 단일 작물 경작 영농화 확산
→ 작물 다양성 약화, 화학 물질 남용, 농지의 소수 집중
- 종자의 상품화 - 소수 기업이 지배

산업형 농업 정책과 녹색혁명

● 산업형 농업 정책

- 세계대전으로 인한 식량 부족, 식량 분배 불균형
- 20세기 농업 생산성 극대화가 농업 정책 최우선 과제
- 농업의 집약화, 산업화, 대규모화 : 제3세계 녹색혁명

● 녹색혁명

- 1960~70년대 제3세계 농업과 식량 생산성 증대
- 선진국 농업기술지원(통일벼) + 다수확품종 개발 증산 + 기술적 사회적 정책 → 1977년 쌀 자급
- 화학비료, 사료, 농약, 종자의 다국적 기업 구입
- 다국적 농업 자본 종속, 지역 물질 순환, 안전, 환경 파괴

농업의 세계화와 시장 개방

● WTO와 시장개방

- 식량 잉여생산 - 제3세계로 수출, 농산물 생산 억제, 가격 유지
- 농산물 수출 요구 - 농산물 시장 개방 - 세계적 농산물 자유무역
- GATT 1947 → WTO 1995 : 자유무역 촉진 국제기구
-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각 국가별 이해관계
 - ① 수출국(미국, 캐나다, 호주) : 관세 완전 폐지, 자국 농민 보조금 수출 가격 인하
 - ② 유럽 연합 : 식량 수급 균형, 자국 농산물 시장 보호
 - ③ 일본, 한국 : 낮은 식량 자급률, 시장 개방 지연, 농업 보호
 - ④ 제3세계 : 환금작물 수출 확대 위한 시장 개방 선호
- FTA(자유무역협정) : 양국간 협정 확대;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 무역주의

현대 농식품체계와 굶주림



맬서스 : 식량과 인구

▣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,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.

▣ 식량과 인구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

- 실천적 측면 : 굶주림, 전쟁, 질병
- 예방적 측면 : 금욕, 순결, 만혼

** 맬서스는 '빈곤법(the Poor Law)'에 반대함

신-맬서스주의

- '수용가능성(carrying capacity)'를 적극적으로 인정
- 가족계획이나 피임과 같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
- 특히 제3세계에 대한 개입

- 1) 인구는 30년 마다 두 배가 될 것이라 예상됨
- 2) 제3세계 인구 비율은 더 증가할 것
- 3) GNP는 30년마다 5배씩 증가될 것 : 식량과 에너지 소비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
- 4) 소득불평등 증대
 - 1960 : 상위20%가 총소득의 70%에 해당
 - 1990 : 상위20%가 총소득의 83%에 해당
 - 2010 : 상위20%가 총소득의 89%에 해당

기아가 인구 문제인가?

<1인당 일년 곡물소비량>

세계평균	323 kg
캐나다	974
미국	860
일본	297
중국	292
인도	186
탄자니아	145
아이티	100

<http://forthesakeofus.blogspot.in/2008/04/philosophy-of-life-poverty.html>



VS.

<http://blog.daum.net/hellopolicy/6980475>



<http://blog.daum.net/tgiday/4176161>



<http://mrhealthtips.com/what-is-obesity.html>

왜 세계의 발전에도 굶어 죽는 여전히 사람이 생기는가?

상식 : 전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굶주릴 수 밖에 없다!?

▣ 세계는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는 걸까?

▣ 세계식량생산 증대 & 기아의 증가

- ◆ 1990년 기아인구(만성영양실조) 8억 2300만
- ◆ 2005년 기아인구 8억 5천만 명 2008년 9억2천 (식량농업기구 FAO)
- ◆ 10세 미만의 어린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
- ◆ 북한의 기아 200만 명

▣ 1984년 지구는 120억 명, 현재 세계인구의 두 배에게 1인당 하루 2,400~2,700칼로리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생산성 도달

굶주림 문제의 시작 - 관점

▣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?

◆식량의 상품화, 시장 가치와 이윤 투기 대상

◆식량 시장의 독과점과 가격의 비합리적 결정

◆소수 기업 시장 지배 vs 농민 생산자의 정당한 대가

◆곡물가 변동 → 다국적 곡물 유통기업, 농식품기업

→ 제3세계 국가와 농민 생산자

◆국가 내전, 권력투쟁, 정치관료의 부패, 세력 연합

** 굶주림의 문제는 식량수급 구조와 정치 경제적 문제

왜 식량은 남아도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?

- ▣ 기근은 식량부족이 아니라 **식량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서** 발생
- ▣ 식량(먹거리)의 생산, 유통은 초국적기업이 독점하고,

먹거리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

- ▣ 아프리카, 아시아 과반수가 농사를 짓는 가난한 나라들의 대다수농민들은 돈이 없어서, 먹거리 가격이 급등해서 구매하지 못함
- ▣ 자급자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토지와 자본 소유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국가의 압박 때문에 자기 먹거리가 아닌 커피, 카카오 등의 수출을 위한 환금작물을 재배하게 되어 먹거리가 항상 부족

2008년 식량위기

- ▣ 2008년 세계 식량가격 급등 위기
- ▣ 2006~2008년 세계 식량가격 83% 상승 (세계은행, 2008)
- ▣ 2008년 3월, 전년대비 밀 가격 130% 상승, 콩 87%, 쌀 74%, 옥수수 31%
- ▣ 식량농업기구(FAO) 에 따르면, 2007년 곡물 풍작으로 충분한 식량 확보

2008년 식량가격 급등 요인

- ▣ 고유가
- ▣ 농산연료의 확산
- ▣ 곡물사료와 육류소비의 증가
- ▣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
- ▣ 투기

➔ 배경에는 현대 먹거리 체계 위기 구조

▣ 세계 식량 공급과 소비 구조의 모순(1)

- ◆ 소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식량 수급
- ◆ 선진국에서 식량이 남아 처리 비용 지출
- ◆ 시장에서 식량은 상품, 투기의 대상
- ◆ 곡물 생산성 증대 과잉생산 → 곡물가 하락 → 선진국의 수출과 식량원조 → 휴경, 가격정책 → 축산 확대 → 저곡가 상태 → 농민과 식량기업의 이익 차이

▣ 세계 식량 공급과 소비 구조의 모순(2)

- ◆ 소수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윤 극대화 투기자본화
- ◆ 식량 가격 폭등 (2008년)과 '카길' 순이익 증대 (52.4%)
- ◆ 식량 위기 → 다국적 기업 이윤 증대 vs. 제3세계 피해
- ◆ 제3세계 빈곤국가는 헐값에 환금작물 수출 ↔ 고가에 식량 수입 : 식량 부족, 구조적 기아

굶주림의 원인

- ◆ 전 세계 곡물의 1/2은 가축과 연료에 사용
- ◆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는 소수 (곡물메이저)
- ◆ 식량부족이 아닌 식량 구입할 돈이 부족
- ◆ 육류 수요의 증대 : 곡물 사료의 증대

“쇠고기 중심의 제국주의적 육식문화 변화 없이 식량 문제 해결은 없다” - 제러미 리프킨- <육식의종말>

- 곡물의 바이오 연료화와 식량 : 곡물가 급등 상관관계

“자동차가 옥수수 먹고, 가난한 사람은 굶고, 이익은 자본이 챙긴다”

<중간고사 여기까지입니다!>